

불·탈법 경선 눈 감은 지도부 ... 민주당 '원팀' 이 흔들린다

총선 D-40 뉴스현장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40일 앞두고 광주·전남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원팀' (One Team) 구성은 핵심으로 보인다. '원팀'은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를 중심으로 경선에 참여한 모든 예비후보들이 함께 힘을 모아 선거를 치른다는 전략 중 하나다. <관련기사 3면>

5일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이 지역 민주당 후보 경선이 치열한 경쟁 탓에 상대 후보 간 고소·고발, 비방, 마타도어 등으로 혼탁 경선으로 치달았다는 평가다. 민주당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들의 재

광주·전남 과열 경선 ... 후보 간 고소·고발 극심한 후유증
광주 광산갑 등 낙선 후보들 경선 불복 재심 신청 잇따라
현역의원 중심 민생당은 캠프 조직 강화하며 본선 준비 나서

심 신청이 잇따르는 등 각 선거구별로 경선 후유증이 커지면서 지역 유권자들의 민심도 냉랭해지고 있다.

이처럼 지역 민심을 뒤로 한 채 다른 지역보다 높은 정당 지지율과 '경선이 곧 당선'이라는 함정에 빠진 '민주당의 오만'이 본선을 앞두고 분열로 치달고 있는 것이다. 경선 과정에서 후보들 간 고소·고발과

함께 감정싸움이 심해짐에 따라 상대 정당 후보들과 맞붙게 될 본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원팀' 구성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라는 게 지역 정치권의 분석이다.

민주당은 광주·전남지역 18개 선거구 중 14곳의 후보를 확정했지만, 후보 간 '원팀'을 꾸린 선거구는 없고, 일부 지역구에서는 경선 결과에 대한 불복과 반발이 이

어지고 있다. 광주 광산갑 선거구에서는 이용민 예비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이석형 후보가 불법 경선을 벌였다면서 재심을 신청했고, 북구갑 선거구에서도 '신천지 방문' 공방을 벌였던 전진숙 예비후보가 재심을 요구했다.

고흥·보성·장흥·강진 선거구 경선에서 김승남 예비후보에게 석패한 한명진 예비후보도 김 후보가 '불공정 경선'을 했다며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지역 다른 선거구의 경우에는 "총선 후보 캠프에 경쟁 후보를 도운 당원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낙선한 예비후보가 '원팀' 참여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광주·전남지역 경선에서 패한 예비후보들이 '아름다운 승복'을 한 뒤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경쟁자를 돕겠다고 나서는 '원팀'은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반면, 광주·전남지역 현역 국회의원이 중심이 된 민생당은 서서히 진용을 갖추면서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나서고 있다. 민생당 현역 국회의원들은 민주당의 경선 후폭풍에 따른 민심 이반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최근 선거 캠프 조직을 강화하고, SNS 채널을 개설한 뒤 출·퇴근 인사를 시작하는 등 본선 준비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의 의정활동 성과와 인물을 앞세우며 민주당 후보와의 일전을 베풀고 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여파와 비례정당 논란의 이고고를 겪고 있는 가운데 든든한 지지기반인 호남에서는 경선이 진행될수록 싸움으로 변하면서 '경선 효과'를 별로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이는 수도권 등 전국 총선 판세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반면, 민생당 현역 의원들은 선거 경험과 조직이 탄탄한 만큼 각 선거구별로 민주당이 원팀을 이루지 못하면 호남에서도 압승을 장담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현필 기자 cki@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코로나19 함께 극복해요" 5일 오전 광주 북구청에서 구청과 북구의회 직원들이 "# 힘내요 광주" 등 코로나19 응원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들고 극복을 응원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최현필 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코로나19 확산 여부 주말이 변곡점

민관공동대책위 출범

역학조사 인력·조직 보강

교회 예배 강행이 변수

광주시가 이번 주말을 코로나19의 지역 사회 확산 여부를 결정하는 변곡점으로 보고, 전문 의료인이 대거 참여하는 민관 공동기구를 설립하는 등 초고강도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2·6면>

시는 특히 광주지역 내 첫 신천지 관련 확진자 발생 후 2주일(코로나19 바이러스 평균 소멸기간)을 넘긴 첫 주말이라는 점

코로나19 '마스크'의 모든 것 ▶7면

에 주목하고, 추가 확산 방어를 위한 종교 행사 자제 등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소규모 교회가 아직까지 교인이 모이는 예배 형식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광주시 등 방역 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와 의료 기관·단체는 6일 코로나19 민관 공동 대책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했다. 시장과 의사 대표가 공동 위원장을 맡고 광주 병원협회장 등 의료 기관 관계자도 참여해 모두 14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공동 대책위는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포함돼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 활동을 하고, 주요 방역 정책도 결정하게 된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전국 자치단체 중

전문 의료인이 자치단체장과 같은 위치에 공동 위원장을 맡는 사례는 광주가 처음이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신천지측과 1단계 협력 대응을 통해 대규모 확산을 막아냈던 광주시는 2단계 고강도 대책으로 '신천지 시설에 대한 강제폐쇄 행정명령'에 이어 3단계로 지역사회 감염에 대비한 전문 의료인 중심의 민관 협업체를 구성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시는 앞서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의료진을 공식 합류시키고, 자문 역할은 물론 정책 결정권도 부여했다. 시는 또 기존 4명, 3개팀에 불과했던 역학 조사관도 전남대 병원, 조선대 병원에서 예방의학 전문의 2명을 지원받아 5팀 체제로 확대했

다. 광주시는 이번 주말을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을 막는 1차 저지선으로 보고,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방역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소규모 교회를 중심으로 집단 종교활동이 예고돼 지역사회 감염의 변수가 되고 있다.

김중호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광주지역 1500여개 교회, 40만 신도 중 집단 예배 대신 인터넷·가정 예배를 결정한 곳은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30%(500여곳 26만 신도)정도라며 "나머지 (소형) 교회 (14만 신도)는 아직까지 함께 모이는 예배 형식을 고수하고 있어 계속해서 (집단 예배) 중단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4시 현재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광주 13명, 전남 4명 등 총 6088명이며, 사망자는 40명이라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정은 "코로나19 극복 응원" ... 남북정상 친서 교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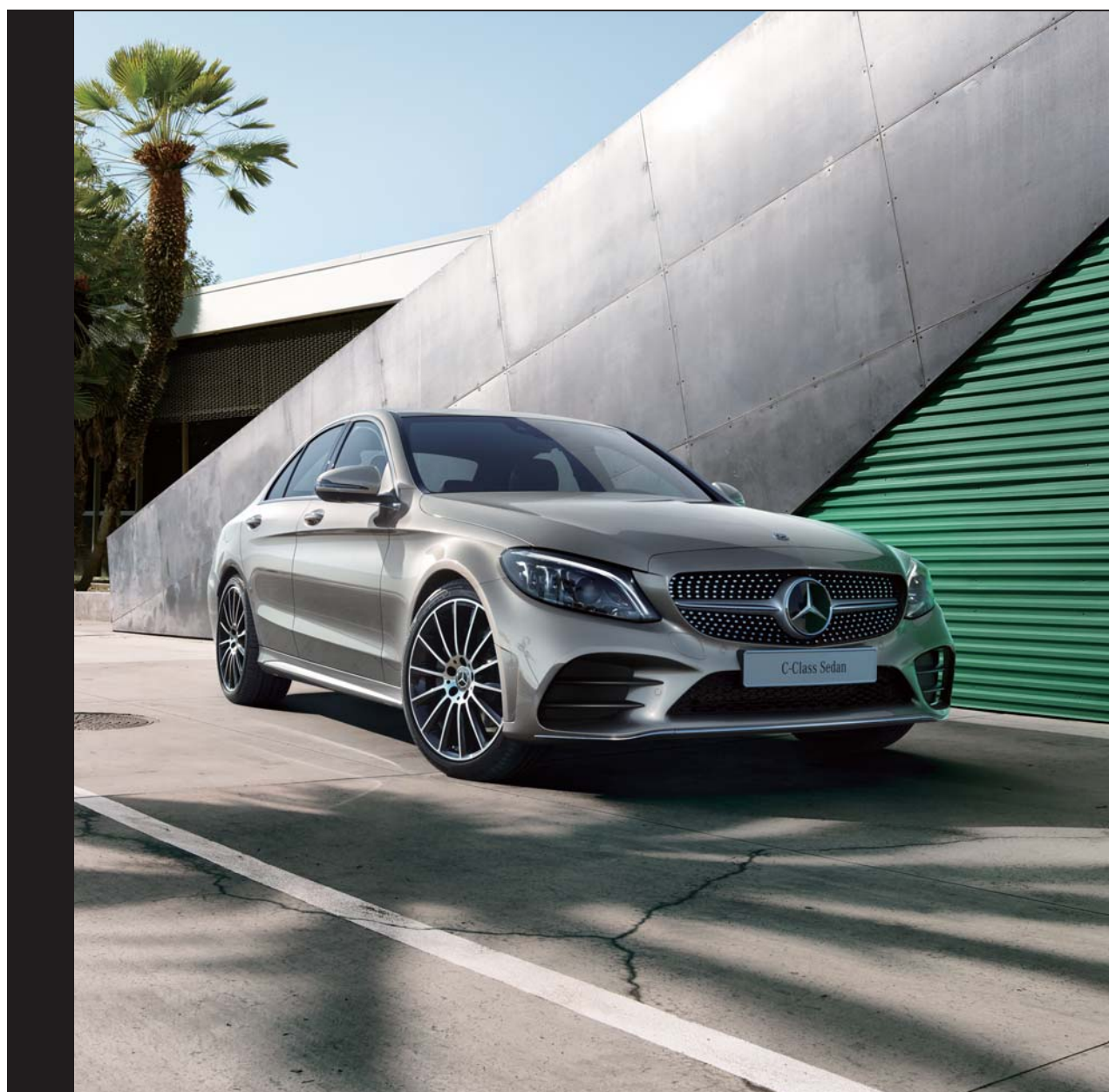
남북대화 물꼬 틀지 주목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친서를 주고 받았다고 청와대가 5일 밝혔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친서 교환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김 위원장이 전날 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고 문 대통령은 이날 감사의 뜻을 담은 답신을 전달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남북 정상 간 친서 교환을 발표하면서 "김 위원장은 친서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우리 국민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친서에서 "(한국이) 반드시 이겨낼 것으로 믿는다"며 "남북 동포의 소중한 건강

이 지켜지기를 빌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에 대해 진솔한 소회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북미 비핵화 대화를 비롯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교착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친서 교환이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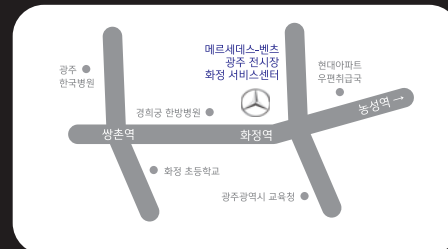
사랑과 감사의 66년
민심과 소망으로 100년
[1954 ~ 2020]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Never stop improving.

The New C-Class Sedan.

메르세데스-벤츠의 새로운 C-Class.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MB 인증중고차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16(수완동)
소촌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동대로 603번길 20(소촌동)
수완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20(수완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C 220 d (배기량: 1,995cc, 공차 중량: 1,650kg, 자동9단), 복합연비: 14.4km/ℓ(도시연비): 13.2km/ℓ, 고속도로연비: 16.3km/ℓ, 등급: 2등급, 복합CO₂배출량: 131g/km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상기 제품 이미지는 실 차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